

금융사 AI 해킹사고 16곳서 개인정보 10만건 유출

금융위 2차 긴급대응 회의…“금융사 추가 가능성” 보안·관리시스템 전수점검…CEO·CISO 책임 명시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인공지능(AI) 해킹 사고로 금융회사 16곳에서 약 1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AI 해킹 침해사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로 사고 발생이 확인된 금융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전금업·은투업

·가상자산사업자 등 전체 업권에 걸쳐 총 16개사로 파악됐다. 기존에 알려진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 새마을금고중앙회,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모우다 외에 5곳이 추가로 보고됐다.

DB저축은행과 산은캐피탈, 브라이트픽스가 침해 사고를 신고했으며, 가상자산업권에서는 고파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와 프라벵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현재까지 확인된 금융사 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이다.

당국은 금융사들이 공유된 인터넷주소(IP) 등을 바탕으로 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 중으로, 사고 발생 금융사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출된 정보 중에 계좌번호·카드번호처럼 직접적으로 부정 결제에 활용될 만한 우려가 있는 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일까지 전 금융권 555개사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130개사가 ‘미흡 사항’을 보고했다. 전금업·은투업에서 미흡 사항이 많이 발견됐다.

주요 미흡 사항은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제3자 기술지원 종료(EOS) 시스템 관리 미흡 △실시간(24시간) 관제 체계 미구축 △공격표면 관리 미흡 등이다. 공격 표면과 관련해서는 대외시스템 대상 인증·인가 누락, 중요 서비스에 강화된 인증 절차(MFA) 미도입이 지적됐다.

당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보안 체계·관리시스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우선 전산시스템이 외부와 연결되는 모든 접점을 목록화하고, 인증·접근통제 권한을 명확히 설정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고경영자(CEO),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의 보고체계와 책임 범위도 명확히 하도록 한다.

금융회사 간 위협정보 공유도 활성화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파악한 위협정보도 통합관리시스템(FIRST)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회사가 침해 위협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위협 수준 정보체계도 마련할 계

획이다. AI 기반 취약점 점검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을러 대형 금융회사의 취약점 점검·평가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요한 외부접점은 필수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보안원이 ‘AI 기반 공동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AI 침해위협에 대한 공격표면 점검, 맞춤형 보안 안내서 마련 등을 지원한다.

관리 사각지대인 대부업,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도 AI 보안 위협 대응 요령을 전파할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한전 하락에 지역 증시 ‘흔들’…시총 1.7조 증발

‘한국거래소 ‘9월 전남광주 상장법인 증시동향’

지역 상장사 시총 28조7458억원…전월보다 5.5% 줄어

코스닥 우리로·한국첨단소재 등 투자릿수 상승률 기록

지난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한 달 새 1조7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가 반토막에 임할 개연성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지만, 지역 증시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유가증권시장 주요 종목의 주가 하락에 발목을 잡혔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우리로와 한국첨단소재, 오이솔루션 등 광주권 기업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대조를 보였다.

14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6년 9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남광주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28조7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30조4303억원보다 1조6846억원(5.5%) 감소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체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6115조4881억원으로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시가총액에서 전남광주 상장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5%로 전월과 같았지만, 지역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시장 전체의 상승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지역 시가총액 감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집중됐다. 전남광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26조3134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8442억원(6.5%) 줄었다.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4324억원으로 1596억원(7.0%)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감소분이 코스닥시장의 증가분을 크게 웃돌면서 지역 전체 시가총액이 하락했다.

종목별로는 한국전력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9월 말 19조2268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조2518억원(6.1%) 감소했다. 지역 전체 시가총액 감소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주가는 3만1900원에서 2만9950원으로 내려갔다.

한국전력뿐 아니라 지역 유가증권시장 주요 종목도 악세를 보였다. 대한조선의

시가총액은 9713억원 줄었고, 한전KPS는 945억원 감소했다. 금호건설과 금호타이어도 각각 25.3%, 9.4%의 시가총액 감소율을 기록했다. 조선내화와 CR홀딩스, 다스코 등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광주권 기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가총액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우리로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우리로의 시가총액은 3조2518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800억원가량 늘어 49.7% 증가했다. 주가는 4955원에서 7420원으로 상승했다.

한국첨단소재도 시가총액이 44.5% 증가한 871억원을 기록했다. 오이솔루션은 시가총액이 22.1% 늘어난 352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산 역시 10.6% 상승하며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증가에 힘을 보탰다. 전남권에서는 에너지그린소재 관련 기업 BG가 15.0%, 박셀바이오가 5.4% 상승하는 등 일부 종목에서 오름세가 나타났다.

지역 투자자들의 거래 규모도 감소했다. 지난달 전남광주 투자자의 주식 거래대금은 3조7622억원으로 전월 4조305억원보다 2682억원(6.7%) 줄었다. 전체 투자자 거래대금이 899조1888억원으로 전월보다 8.6% 감소한 가운데 지역 투자자들의 거래 역시 위축된 것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광주 농가 가입률 0.42% 그쳐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전남광주지역 농가의 가입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역은 대상 농가 100곳 중 1곳도 가입하지 않은 수준에 그쳐, 기상재해 정보를 실제 농업 현장에 전달하기 위한 이용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상수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광주지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대상 농가 1만2521곳 가운데 가입 농가는 52곳으로 집계됐다. 가입률은 0.42%에 불과했다.

전국 가입률 5.42%와 비교하면 5%p가량 낮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서비스 대상 97만3233농가 가운데 5만2778농가가 가입해 92만455농가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전남지역은 시군별 가입률 차이가 두드러졌다. 곡성군은 대상 농가 4544곳 중 1816곳이 가입해 39.96%의 가입률을 기록, 전국에서 장 높으며 농가 10곳 중 4곳가량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목포시는 대상 농가 1404곳 가운데 가입 농가가 9곳에 그쳐 가입률이 0.64%였다. 전남지역에서도 곡성과 목포의 가입률 격차가 약 39%p에 달한 셈이다.

다른 지역도 가입률이 엇갈렸다. 순천시 16.50%, 광양시는 16.01%였으며 보성군은 14.53%를 기록했다.

장성군은 10.11%로 10%대를 보였지만 강진군은 9.68%, 영암군은 9.22%, 장흥군은 8.33%에 머물렀다.

이밖에도 진도군은 7.34%, 고흥군은 7.24%, 구례군은 6.45%, 함평군은 6.00%, 나주시는 5.59%였다. 여수시는 5.21%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며 화순군은 4.74%, 영광군은 4.62%, 완도군은 4.46%, 해남군은 4.31%, 담양군은 4.16%를 기록했다.

전남 무안군과 신안군의 가입률은 각각 3.11%, 2.48%였으며 광주와 목포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4년부터 핵심기술 개발과 지역 실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했다.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까지 총 136억2000만원이 편성됐으며 서비스 대상 지역도 2021년 40개 시군에서 지난해 167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서비스 확대에도 전국 가입률은 2021년 5.13%에서 2022년 3.81%, 2023년 3.66%로 낮아졌다가 2024년 4.33%, 2025년 4.46%로 상승했고 올해 8월 5.42%를 기록했다. 농업재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데 고치지 않고 농업인이 적시에 받아 피해 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용성 기자



신동훈 갤럭시아머니트리 대표와 변미경 광주은행 부행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디지털자산 무역송금 모델 개발 갤럭시아머니트리와 한·일 법인간 정산 기술검증 MOU

광주은행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무역송금 모델 개발에 나선다. 광주은행은 지난 13일 갤럭시아머니트리(대표 신동훈)와 디지털자산 기반 무역송금 분야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광주은행의 금융서비스 역량과 갤럭시아머니트리의 법인 간 해외 정산·송금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무역송금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련 분야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간 디지털자산 무역송금 기술검증(PoC)을 우선 추진하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특히 기술검증 과정에서는 수출입 법인의 무역서류 대서부터 송금·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테스트 환경에서 구현하고, 실제 무역송금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의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변미경 광주은행 부행장은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무역송금의 기술적 가능성과 업무 프로세스를 검증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갤럭시아머니트리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자산 무역송금 모델을 구체화하고, 향후 관련 제도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금융서비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광주 통합 채용박람회 광양서 열려

구직자 등 1000여명 참여…39개 기업 현장면접

전남광주지역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통합 채용박람회(가)14일 광양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기업별 현장면접과 취업 상담에 더해 지역 산업과 새로운 직무를 살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9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이어 통합시출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됐다. 통합시와 순천시·광양시·곡성군 등 9개 시·군,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등 4개 관계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이 공동 주관했다. 박람회에는 현장채용 기업 39개사와 간접채용 기업 20개사, 홍보 참여기업 20개사가 참여했다.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 등 1000여명은 기업별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면접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행사장은 채용존과 미래산업존, 홍보존, 참여존 등 80여개 부스로 구성됐다. 채용존에서는 기업 채용담당자와 구직자 간 현장면접이 진행됐다. 간접채용관은 현장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해 구직자가 더 많은 채용 기회를 살필 수 있도록 했다.

공기업·일자리 정책 홍보관에서는 공공부문 채용정보와 취업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취업 상담을 비롯해 이력서 등에 활용할 프로필 사진 촬영, 패스널 컬러 진단, 지문 적성 검사 등 구직자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지역 산업의 변화와 관련 직무를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미래산업관과 스마트그린산단관, 인공지능(AI) 체험관에서는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일자리를 소개하고, 구직자가 산업 변화에 따른 직무와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협화순군지부는 최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화순군과 나주시 농협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식을 개최했다.

화순·나주 농협,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능주·도곡·나주·봉황농협 임직원 140명 참여

지자체에 700만원씩 전달…지역 상생 협력

화순군과 나주시 농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에 힘을 보탰다.

농협화순군지부는 지난 13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화순군과 나주시 관내 농협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화순군의 능주농협·도곡농협과 나주시의 나주농협·봉황농협

임직원 140명이 참여했다. 양 지역 농협 임직원들은 상대 지자체의 발전을 응원하는 뜻을 모아 총 1400만원을 교차 기부했으며, 각 지자체에 700만원씩 전달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인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간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최우영 농협 화순군지부장은 “이웃 지자체인 나주시와 화순군 농협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두 지역의 교류와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나주시와 화순군 농협 임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다”며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